

역사의 무게를 간직한 도시, 시안

글·사진/ 한필원(본지 중국지역 편집위원, 한남대 교수)

역사도시의 무거움

수대(隋代)에서 계승된 당대(唐代)의 도읍지. 비잔티움의 규모와 찬란함을 능가하는 국제도시이었던 역사도시 시안, 그 안에서도 중심인 종루(鐘樓) 옆에서 필자는 원숭이가 되어버렸다. 그것도 Kenny G의 색소폰을 배경으로.

그날은 아침부터 혼자서 시안(西安) 시내의 전통주거지를 답사하고 있었다. 점심 때가 되어 먹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찾은 곳이 종루 옆에 있는 대만식 fast food점이다. 접시 하나에 3인분 이상의 음식이 담기는 중국음식점에 홀로 들어갈 수 없어서 찾은 그곳에서 치즈햄버거, 감자튀김, 과일 사라다를 시켜놓고 가로가 훤히 바라보이는 창가의 스툴에 높이 걸터앉았다. 온 벽이 유리로 된 자리에서 종루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난 시안의 중심도로인 동파지에(東大街)를 바라보며 이곳 사람들의 행색을 구경하는 것도 흥미있을 것 같았다. 중국도시 특유의 먼지를 피해 편안히 사람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만 한 곳도 없을 성싶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였다. 내가 사람들을 볼 수 있으면 그들도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상식을. 나는 곧, 내가 밖의 사람들을 보는 것 못 지 않게 거리를 걷고 있던 그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더 열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모택동 옷차림의 할머니는 거대한 창 앞에 나와 앉아 낯선 음식을 먹고 있는 나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구경하듯 야릇한 눈길로 쳐다본다. ‘젊은 사람이 체신머리 없기는……’ 어떤 아주머니는 아주 노골적으로 코앞에 다가와서 뭘 먹나 쳐다본다. ‘저것도 음식인가……’ 내가 눈에 힘을 주어 그의



〈사진 1〉 반포 선사시대 주거지

이 곳을 답사하면 누구나 인류의 기원과 거주공간의 원형에 대하여 사색에 빠지게 된다.

〈그림 2〉 시안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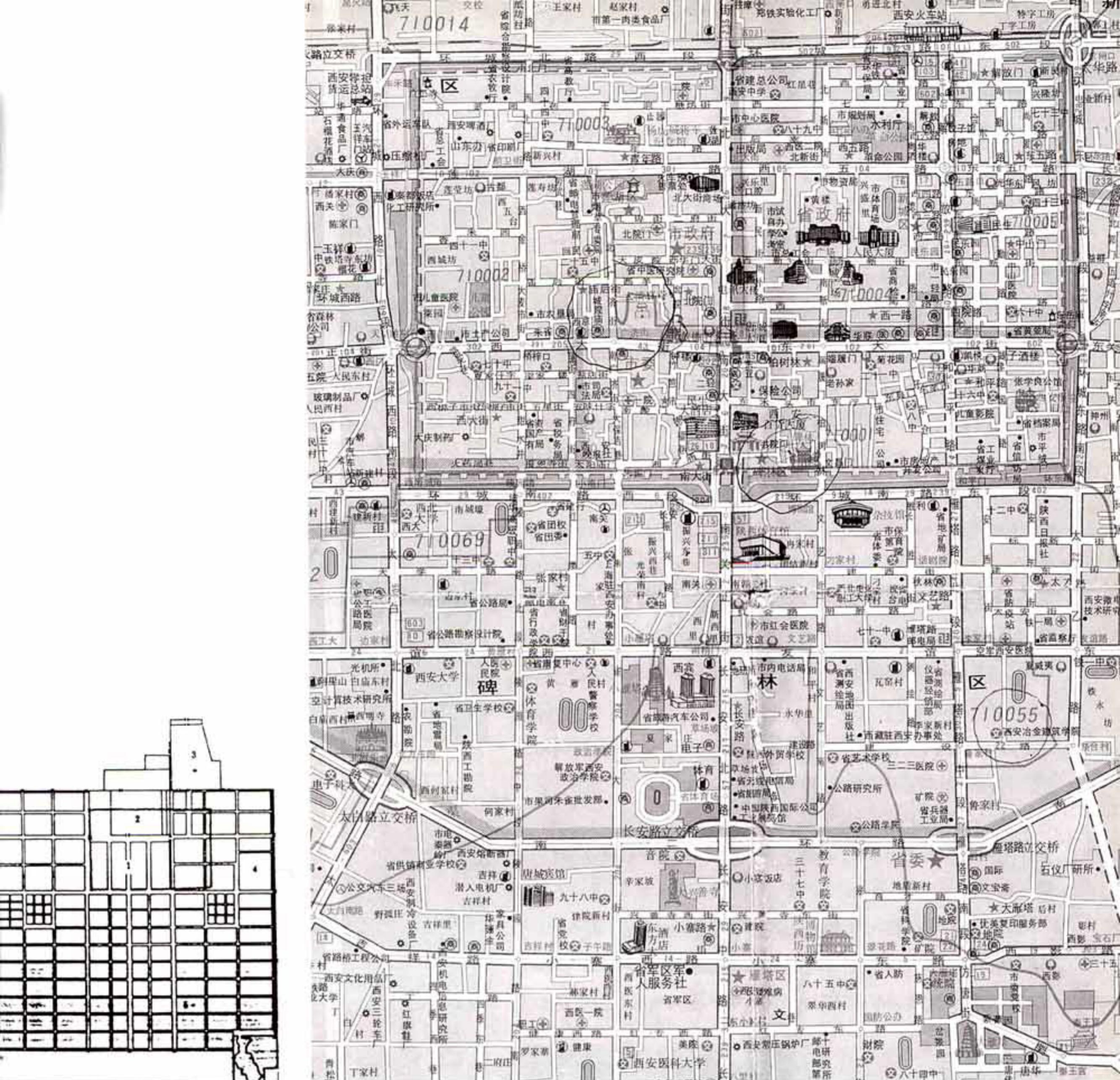


그림 1) 당 창안성 배치도
현존하는 시안성벽이 표시되어 있다.

1. 황성(皇城)
2. 태극궁(太極宮)
3. 대명궁(大明宮)
4. 흥경궁(興慶宮)
5. 파엔타(大雁塔)

그림 2) 시안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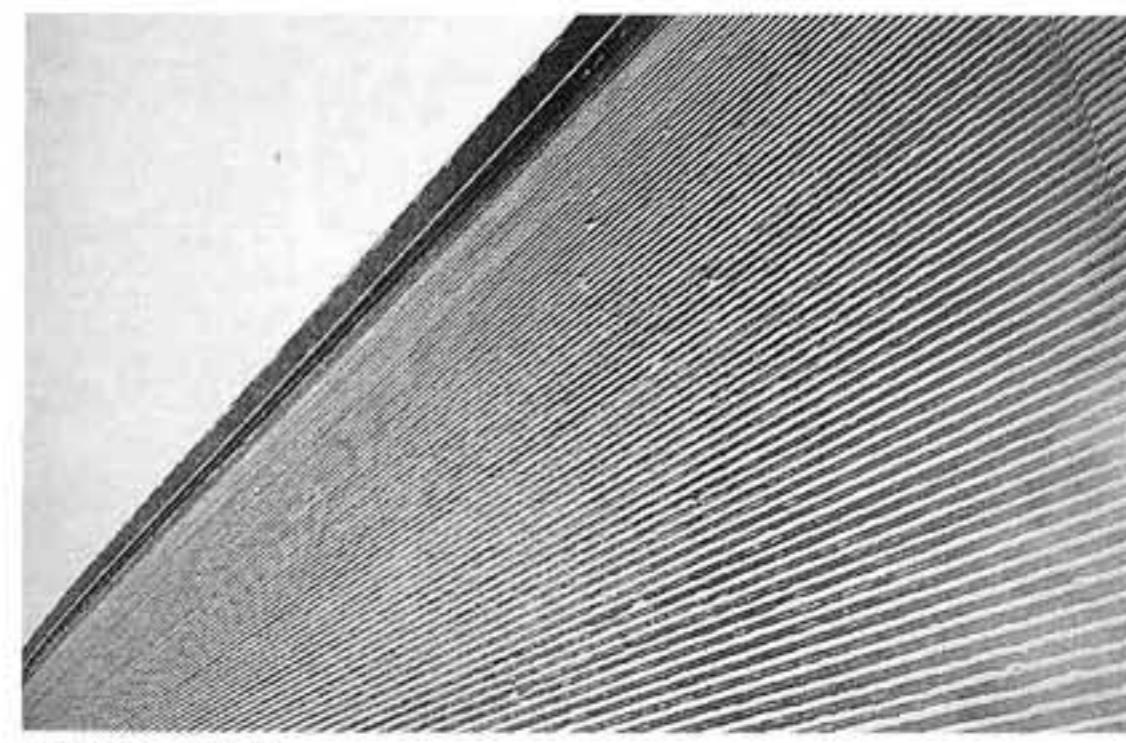
눈을 똑바로 쳐다볼 때까지 떠날 줄을 모른다.

존경의 눈초리가 아닌 호기심 어린 시안 시민의 열화와 같은 눈초리를 받으며 필자는 현대 도시의 경박함에 물들지 않은 한 고도(古都)에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어쩌면 현대 도시의 경박함에 질려있는지 모른다. 역사성은 온데간데 없고 상업주의의 교태와 가벼움으로 가득찬 그런 도시에 지쳐있는지 모른다. 그런 우리에게 역사적 명성에 걸맞은 무겁고 점잖은 풍모를 가진 시안과 같은 도시는 매우 독특한 체험의 대상이다.

중국 봉건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한 당. 그 당의 수도인 창안(長安)은 인구 백만에 달하는 세계 제일의 대도시이자 국제도시이었다. 서역(西域)으로 로마까지 이르렀던 실크로드가 시작된 창안은 당시 로마 크기의 세 배에 달했다고 한다. 규모만이 아니다. 그 도시는 세계문명이 교차하는 문화의 중심지이었다. 중

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창안, 그러니까 오늘의 시안이 유교, 도교 뿐 아니라 기독교문화, 불교문화, 이슬람문화를 포용하는 문화의 메카가 될만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시안에 수도를 정한 당은 메디치가의 피렌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국 역사상 학문, 예술 그리고 문화가 가장 빛나는 시기이었다. 한 예로, 역자 '중국의 과학과 문명'으로 유명한 조셉 니답(Joseph Needham)의 연구에 의하면 754년에 설립된 한림원(翰林院)은 유럽에 존재한 어떠한 학술원보다 천 년이나 앞선 것이라고 한다.

일찍이 시안은 주(周)나라부터 10여 왕조에 걸쳐 천여 년 수도로 자리잡아온 곳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시안 지역은 아마 인류가 도시를 이루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지역 중의 하나일 것이다. 시안의 동쪽 찬허(河)라는 강의 동안(東岸)에 위치한 반포(半坡) 유적은 그러한 역사적 깊이의 증거이다. 선사시대 주거지의 유적을 발굴하여 박물관으로 조성된 반포촌은 신석기시대의 앙소(仰韶) 문화에 속하는 마을 유적으로 C14 측정에 의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이상 된 주거지로 판명되었다. '어머니는 알지만 아버지는 모르는' 모계 씨족 사회의 절정기에 농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조성된 50,000m² 면적의 주거지인 반포 유적지에는 씨족 우두머리의 집이자 씨족 구성원들의 집회장소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남북 12.5m, 동서 10m의 '큰 집'을 중심으로 집들이 분포한다. 그곳의 집들은 지면 위에 형성된 직경 4~6m의 원형주거와 지면 아래 50~80cm를 파고 내려간 수혈주거인 면적 12~40m²의 방형 주거로 나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거는 황하의 중하류 유역에 분포했던 것으로 보인다.(사진 1)



〈사진 2〉 시안 성벽

명대에 축조된 것으로 오늘날까지 남아 역시도시 시안의 면모를 보여준다. 성벽으로는 해자(堀字)가 둘러되어 있고 그 밖으로 다시 가로가 나란히 형성되어 있어서 성벽 밖으로 차를 달리며 성벽을 감상하는 맛이 제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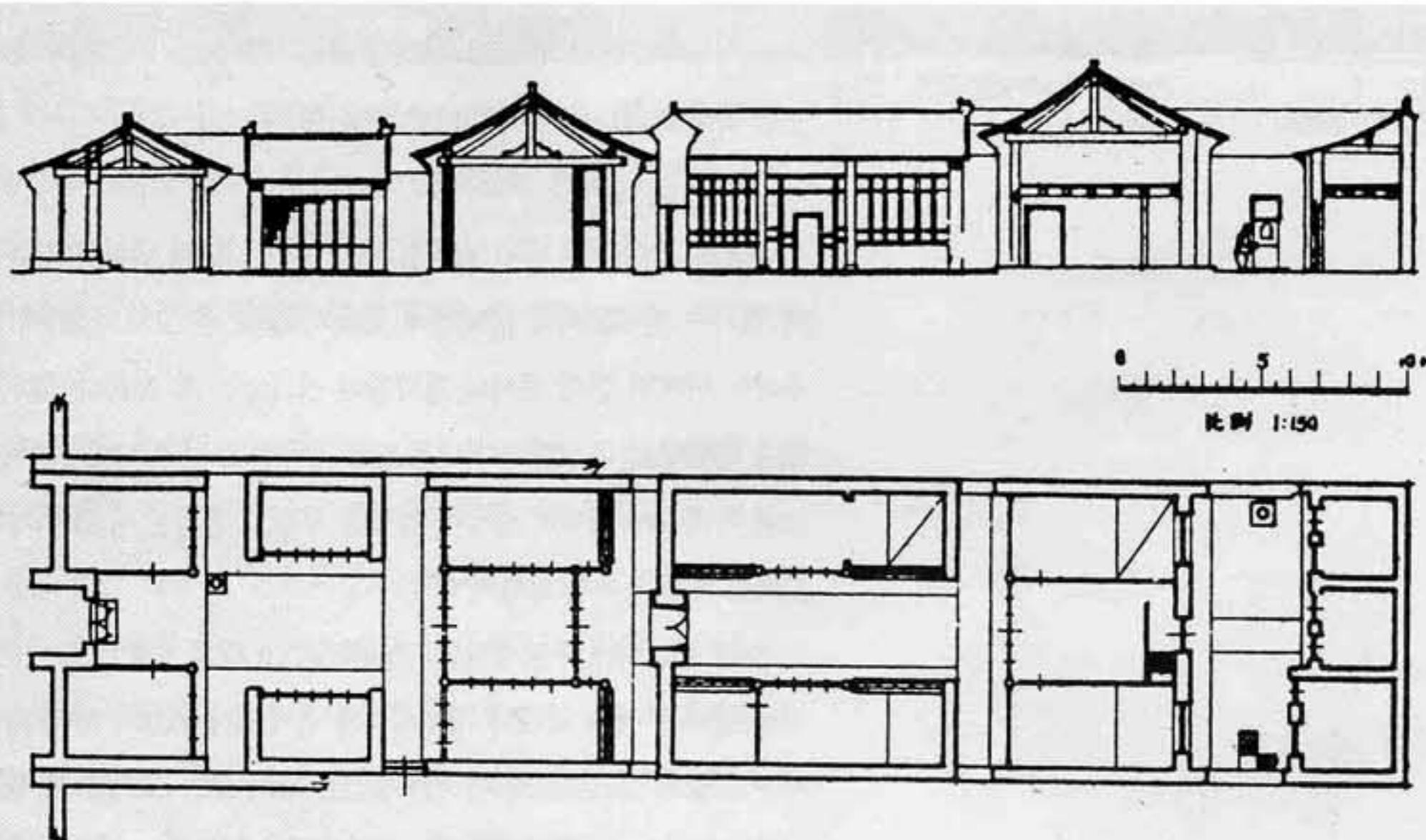


〈사진 4〉 종루에서 본 남대가 멀리 남쪽 문루(南城門樓)가 보인다.

도시구조의 질서

시안은 수나라의 대홍성(大興城), 그리고 당의 창안성이 있던 자리이다. 창안은 중앙 북단에 궁성이 있고, 그 남쪽으로 관청소재지인 황성(皇城)이 배치되었으며 격자형 패턴을 가진 계획도시이었다. 시가지는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방

〈그림 3〉 시안 수위엔먼가(書院門街)의 집
삼진원(三進院)의 사합원 구조로 좁고 긴 배치방식을 보여준다.





〈사진 3〉 종루

도시의 동서축과 남북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는 도시의 랜드마크이다. 시안의 가로는 종루를 중심으로 동, 서, 남, 북대가(東, 西, 南, 北大街)로 구성된다. 사진은 북대가에서 본 모습

(坊)으로 불리는 블록으로 구성되며 그 외곽에는 높이 5m 이상의 성벽을 쌓았었다고 한다. 곧, 창안은 성벽으로 영역이 규정되며 격자형 도로로 영역이 조직되는 특성을 가졌다. 동서 약 10km, 남북 약 8km의 이 외성(外城)내에는 두 곳의 시장, 곧 東市와 西市가 있었고, 그곳은 발해와 신라, 터키,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아라비아, 인도 등지에서 온 상인들로 붐비었다고 한다. 그러한 여러 지역의 많은 인물상들은 당대의 분묘에서 출토된 도용(陶俑)에 매우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당시의 예술도 외국인이 활보하던 창안의 거리처럼 이국 취향으로 충만되어 있다. 이 창안성은 발해의 상경부(上京府), 고구려의 장안(長安; 평양), 신라의 왕경(王京; 경주), 일본의 평성경(平城京; 나라)과 평안경(平安京; 京都) 등의 건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창안은 동아시아 도시의 모델이었던 셈이다.(그림 1)

오늘의 시안은 창안의 터 위에 명대(明代)에 그 틀이 새롭게 짜여진 것이다. 명대에 새로 축성된 성벽 외곽으로 격자형의 가로를 따라 도시가 확장되어 왔다.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성벽은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은 창안성의 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성벽 내에는 직선으로 성벽을 관통하는 남북 방향의 3개, 동서방향의 2개 도로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 남북과 동서의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 종루(鐘樓)가 놓였다.(그림 2, 사진 2~5)

오늘날 중국의 도시에서 이렇게 온전한 성벽을 가진 도시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성벽 내의 도심부는 제한된 면적에 성정부(省政府: 산시성(陝西省) 정부)와 시정부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해 있어서 날이 갈수록 과밀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 안에서는 특히 자전거와 승용차, 버스가 보행자와 뒤엉켜 교통이 마비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시안의 택시기사들은 습관적으로 크락션을 울린다.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성벽에 여러 개의 성문(?)을 뚫어 놓았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다. 시안 역시 역사도시의 현대도시화에 따른 문제들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사진 5〉 고루(鼓樓)의 공포

고루는 종루의 서쪽 西大街에 면해 있다.



〈사진 6〉 고루 부근의 가로

2층의 상점주택이 가로면을 형성하며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흡사 주택의 대문파도 같이 강조된다.

〈사진 7〉 주거지의 입구

골목에 문을 만들어 하나의 영역의 시작을 알린다.



〈사진 8〉 주거지의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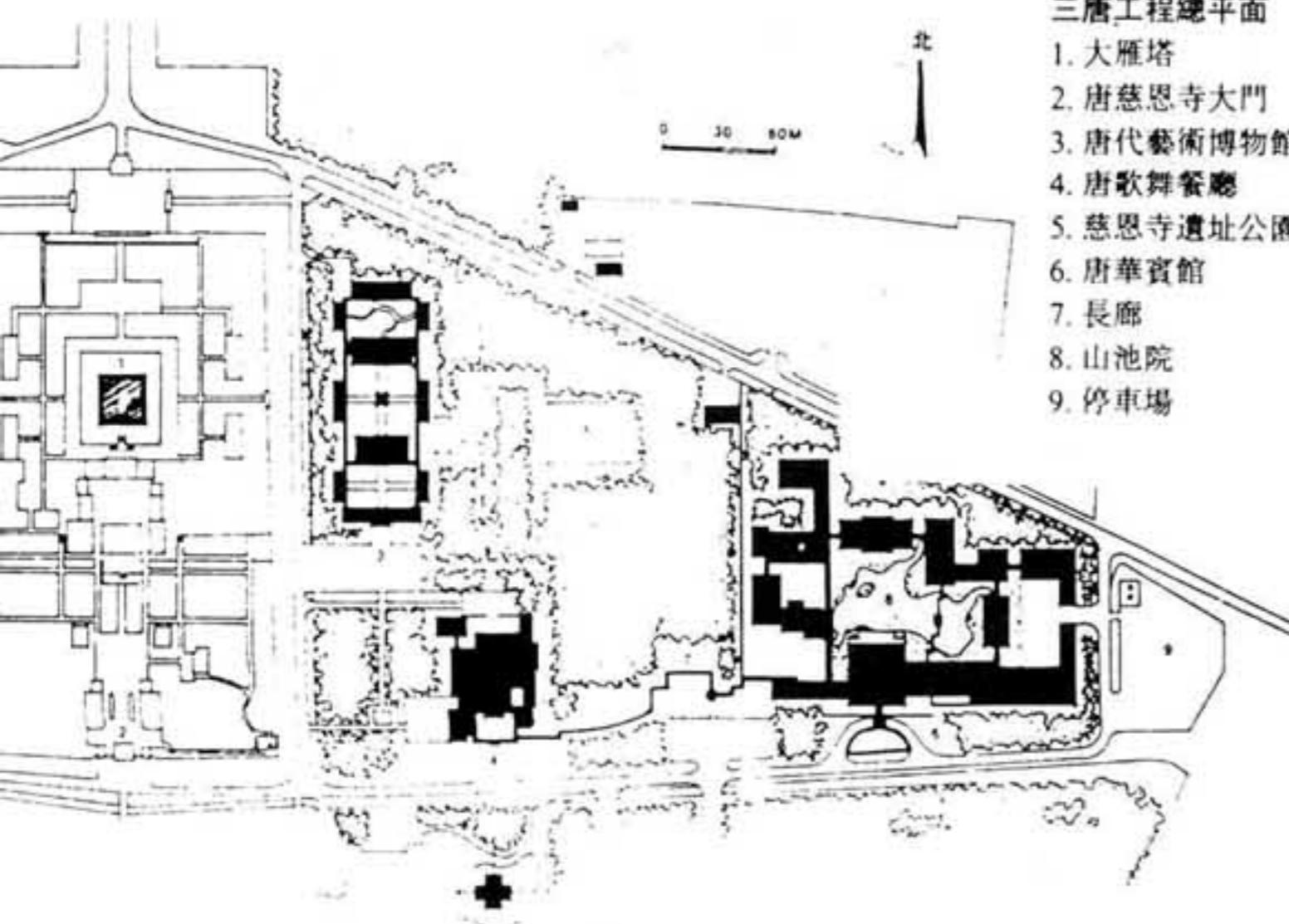
빛의 대비가 골목의 반복적 구성을 암시한다.

시안 주변의 산시성 지방은 요동(窯洞)주거라고 하여 동굴을 파내어 집을 만드는 독특한 주거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시안 시내에는 중국의 전통적 주거유형의 대명사인 사합원(四合院) 형식의 집들이 많다.(사합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호 참조) 그런데 산시성 일대의 사합원은 베이징의 그것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베이징의 사합원과는 달리 상방(廂房)부분이 정방(正房)을 가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림 3>에서 보듯이 대지가 매우 좁고 깊으며, 좌우 상방은 거리가 1~2간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가깝게 배치된다.

시안의 성내(城內)에는 회교사원인 칭즌스(清真寺) 부근에 대개 2층집들로 이루어진 전통 도시주거지가 남아 있다. 낯선 이들을 불안케하는 강한 영역성을 갖는 이 도시주거 마을에서는 무엇보다도 특히 공간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빛의 대비가 인상적이다. 하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점주택이 늘어선 큰 가로에서 골목으로, 다시 각 집의 마당으로 이르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때 공간은 길고 넓은 곳[가로]에서 좁고 긴 곳[골목]으로 다시 넓은 마당으로 이어진다. 이 때 빛은 밝았다[가로] 어두웠다[골목] 다시 밝아진다[마당].(사진 6~8)

이 곳의 집들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원래 한 가구가 거주하던 한 주택에는 이제 10개 이상의 가구가 공동으로 거주하여 거주밀도가 매우 높아졌다.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직장 소속이다. 부동산 관리소(房官所)로부터 단위가 주택을 임대하여 다시 소속 직원들에게 배분하였기 때문이다. 문화대혁명 때부터니까 20년 이상 그 자리에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대개 가구당 40~50m²의 면적에 1청 3실(1廳3室)의 공간을 꾸며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매월 30元(우리 돈 3,000원) 정도의 주거임대료를 지불한다. 전통주택의 층고가 높으므로 다락방(樓房)을 만들어서 20~30m² 정도의 면적을 더 확보하

<그림 4> '삼당공정'의 배지도



<사진 10> 당대 예술박물관의 중정에서 따연타를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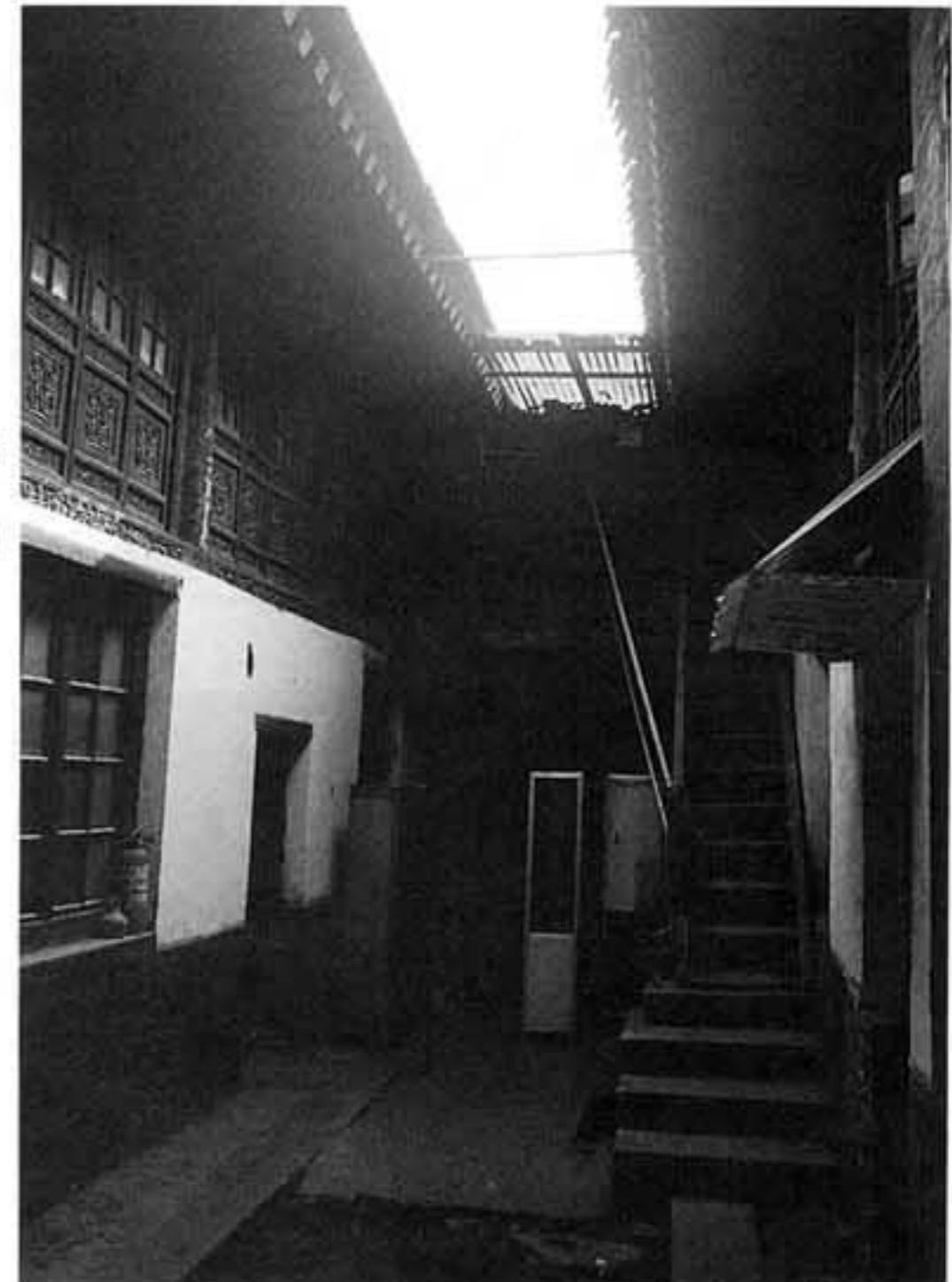


<사진 9-1> 청진스 부근의 한 주택

후면에 2층의 건물이 있는 사합원식의 한 상류주거가 지금은 화원(画院) 겸 미술 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9-2> 청진스 부근의 한 주택

후면에 2층의 건물이 있는 사합원식의 한 상류주거가 지금은 화원(画院) 겸 미술 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11〉비림(碑林) 입구의 가로
베이징의 류리창과 비교될만한 전통건축으로 이루어진 복고적인 거리이다.



〈사진 12〉가로변 전통양식의 건물
시안의 가로에는 독특한 색채의 기와를 씌운 근대 건물들이 눈에 많이 뛴다.

여 부족한 면적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시안 도심부의 많은 주거는 화원(畫院), 전시관 등으로 용도가 변모하였다. 점차 비주거용 용도가 도심의 주거지를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거지의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이 통째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재개발에 대한 욕구가 일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음에 이 곳에 찾아온다면 이런 예스런 분위기를 맛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이 도시마을을 빠져나오는 필자의 머리에 스친다. (사진 9-1, 9-2)

세계로부터 밀려드는 물결에 함몰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아시아의 도시가 있을까? 그러나 한 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시안에서조차 그러한 불길함을 감지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쓰러운 일이다. 시안의 건축가들도 그와 같은 위기감에서 강박관념과도 같이 전통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당대(唐代)의 풍모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들의 노력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따옌타 동쪽의 삼각형 대지를 개발한 시안시 따옌타 풍경구(西安市大雁塔風景區)이다. 따옌타는 당 고종(高宗) 때 쉬앤장(玄)이 창건한 츠은스(慈恩寺)라는 절 내에 위치하는 64m 높이의 방형(方形) 7층 전탑(塔)이다. 그것은 시안 역에서 시작하는 한 가로의 terminal vista를 이루는 도시의 랜드마크이다.

'삼당공정(三唐工程)'으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호텔, 연회실, 그리고 당대(唐代) 예술박물관의 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여성 건축가 중 한 사람인 장진추(張錦秋)를 중심으로 한 서북설계원(西北設計院)에서 1986년 설계한 이 프로젝트는 따옌타와의 시각적 연결을 중시하면서 당대의 건축을 충실히 재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건축에 대한 태도는 시안의 대로변에 즐비한 건물이나 가로의 설계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그림 4, 사진 10~12)

그러나 그러한 전통과 역사에 대한 태도에 상업적인 면이 개입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비림(碑林)을 구경하며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비림은 비석의 숲이라는 말 그대로 각 지의 비석을 모아놓은 곳으로 시안의 유명한 관광코스이다. 거기에는 안준칭(안진경: 風眞卿), 왕시즈(왕희지: 王羲之), 차오멍푸(조맹부: 趙孟) 등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비록 그 중국 발음은 낯설지만) 명필들의 셔가필목이 한 자리에 모아져 6개의 전시실에 전시되고 있다. 필자는 비림을 관람하던 중 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았다.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비석을 탁본하여 주고 있었다. 문화대혁명 때 두 동강이 난 비석들이 도망쳐 나온 듯 슬픈 모습으로 모여있는 비림에 이제는 관광수입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었다. 쉴 새 없는 탁본을 견뎌낼 비석은 없을 것이다. 곧 다시 '그놈의 돈 때문에' 두동강이 날 비석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끔찍하다. 한 사회가 자기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요하는 것일까?

시안 동쪽 37km 지점에 위치한 진시황의 병마용은 시안을 찾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시안에 사는 젊은이들의 발길은 종루(鐘樓)옆에 있는 대형 전자오락실에 몰리고 있다. 한대, 당대의 문물을 전시하는 문물전시실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 오락실은 최신의 비디오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필자는 썰렁한 문물전시실과 대조적으로 문밖까지 사람들로 가득찬 그 대형오락실을 보며, 남 눈치 안보고 큰 유리창가에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하였다. 아니, 햄버거보다는 일본에서 직수입한 하찌방 우동을 먹을 가능성이 더 많다. 지금 시안에 퍼부어지고 있는 일본의 연구와 투자를 생각하니..... **POOR**